

보도시점 2026.8.11.(화) 11:00
< 8.12.(수) 조간 >

배포 2026. 8. 11.(화)

산업부, 美 폴리실리콘 232조 관세 민관합동 대책회의 개최

-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과 공급망 영향 점검 및 대응방안 모색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지난 8.6(목)(美 현지시간 기준) 미국 정부의 폴리실리콘 232조 관세 부과 발표에 대응하여, 8.11(화) 16:30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로 관계부처·업계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동 회의에는 기후부, 삼성전자, 한화큐셀, OCI, SK실트론 및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유관 부처와 기업들이 참석하였다.

지난 '26.8.6(목) 美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여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에 대해 최저수입가격제*를 도입하고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잉곳, 웨이퍼, 셀 등)에 대해 15%의 관세 부과를 발표한 바 있다.

* 폴리실리콘 21달러/kg, 잉곳웨이퍼 100달러/kg, 태양광 셀 0.22달러/와트, 태양광 모듈 0.38달러/와트

오늘 대책회의는 미국의 동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영향과 미국에 진출·투자한 우리 기업의 공급망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우리 기업의 영향 최소화 방안을 포함한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는 오늘 회의를 토대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기업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미 협의를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오늘 회의에서 박 차관보는 “금번 폴리실리콘 232조 조치에 따른 우리 업계에 대한 장·단기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적시적소에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 총괄 >	산업통상부 미주통상과	책임자	과 장	구진경 (044-203-5650)
		담당자	전문관	옥웅기 (044-203-5657)
	기후에너지환경부 태양광산업과	책임자	과 장	홍수경 (044-203-5370)
		담당자	사무관	윤남웅 (044-203-5371)

참고

美 폴리실리콘 232조 관세 관계부처 대책회의 개요

- (목적) 폴리실리콘 232조 관세 조치 발표(8.6)에 따른 우리 대미 수출 및 미국 진출 기업 영향 점검, 대응방안 검토
- (일시/장소) 8.11(화), 16:30~17:30 / 대한상의 5층 Wejoins B-5룸
- 참석자
 - (정부) 산업부 통상차관보(주재), 미주통상과장, 신통상전략과장, 반도체과장, 기후부 태양광산업과장
 - (기업) 삼성전자, SK실트론, 한화큐셀, HD현대에너지솔루션, OCI
 - (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 논의
 - 폴리실리콘 232조 발표 주요 내용(미주통상과)
 - 폴리실리콘 파생상품 대미 수출/진출 기업의 공급망 영향(반도체협회)
 -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및 미국 내 사업 영향 및 대응계획(한화큐셀, HD현대에너지솔루션, OCI, 삼성전자, SK실트론)